

아이들과 함께하면 영혼이 맑아진다.

The soul is healed by being with children.

(Fyodor Dostoevsky)

영혼은 아이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치유된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아이의 마음은 순수하다. 그런데 어른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어른도 한때는 순수한 아이였다.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아이가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저런 마음으로 오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염된 어른이라 하더라도 순수한 아이와 함께하면 자신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되고, 그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게 된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행복한 영혼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성인이 아이들과 함께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다. 어린아이 때의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면 된다. 어린 시절의 자신의 순진했던 때를 떠올리고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보라. 아이의 시절로 되돌아가면 어른의 지친 영혼이 치유되어 맑아질 것이다.